

최인훈 문학 심포지엄 열려·외

『광장』 발간 40주년을 기념해 '최인훈 문학 심포지엄'이 지난달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발제자를 비롯해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 이인성 등 문인들과 영화감독 김기덕씨, 서울예술대학 동문 등 모두 300여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1960년 문예지 『새벽』에 발표된 『광장』은 한국전쟁에 휘말린 지식인 이명훈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비판한 소설로, 1961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지금까지 125만권이 팔려나간 스테디셀러다.

발제 내용은 〈광장의 역사적 의미〉(정호웅), 〈최인훈 소설의 전개과정〉(정과리), 〈최인훈 문학의 실험성과 현재성〉(김인호), 〈문학은 어떤 일을 하는가 : 최인훈의 문학론〉(김태환)으로 최인훈의 문학예술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문학평론가 김병익씨는 축하인사에서 "『광장』은 억압의 70년대, 변혁의 80년대, 해체의 90년대를 넘어 2000년대 사이버문명 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살아 숨쉬는 고전"이라고 평가했다.

제15회 '단재상' 수상자 선정

한길사가 제정·운영하는 단재상 운영위원회는 제15회 단재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한국사 이야기』(한길사)의 이이화씨를 선정했다. 이이화씨는 역사문제연구소 소장과 『역사비평』의 편집인으로 한국 근현대사 사료를 발굴하는 한편,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사업을 주도했으며 탄탄한 학술력과 역사학을 기반으로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이야기 인물한국사』 『조선후기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등을 펴내는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운영위원회는 수상도서인 『한국사 이야기』에 대해 저자의 40년 역사연구를 집대성하는 대작이며, 해방 이후 이렇다 할 한국통사가 없는 학계에 유례없는 작업이라는 점과 기존의 정치사·사건사 위주의 역사서술에서 탈피해 민

중사와 생활사에 초점을 맞춰 기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5월 9일 오후 7시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문학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 515-4836

제34회 소천 아동 문학상 발표

동화작가 남미영씨가 『소년병과 들국화』(세상모든책)로 교학사가 운영하는 제34회 소천 아동 문학상을 수상했다. 심사를 맡은 조대현씨는 수상작 『소년병과 들국화』가 "길지 않은 중편이지만 완벽한 구성을 갖췄으며 시의성을 초월한 주제처리에서 원숙한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시상식은 5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홀리데이 인 서울 2층 백합홀에서 열린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총회 참가단 모집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두영)는 2001년도 제67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총회(2001. 8. 16~25, 미국 보스턴)에 참석할 대표단을 모집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도서관과 사서 : 지식사회 핵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2천여명의 도서관인이 모여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규모 전시회를 연다. 현지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참자가 신청 접수는 5월 8일까지 받는다.

⇒ 535-4868

출판인회의, 〈이 달의 책〉 선정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는 제13차 〈이 달의 책〉 36종을 선정·발표했다. ▲대중문화 및 예술분야 『재즈』(류시앵 말송 외, 박인철, 한길사), 『음악으로 기르는 내 아이 행복한 아이』(존 M. 오타즈, 권혜경, 국일미디어), 『우리연극 100년』(서연호 외, 현암사) ▲문학1 『내 영혼은 오래 되었으나』(허수경, 창작과비평사), 『처음부

터』(크리스토프 하인, 한경희, 생각의나무),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김인숙, 문학동네), 『라틴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서성철 외, 까치글방),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나병철, 문예출판사)

▲문학2 『시시한 것들의 아름다움』(강홍구, 황금가지), 『책그림책』(밀란 쿠데라 외, 장희창, 민음사), 『함석헌평전』(김성수, 삼인), 『절망의 시대 선비는 무엇을 하는가』(허권수, 한길사) ▲사회과학 『반조류의 중국』(마크 블레처, 전병곤 외, 돌베개), 『2001 싸이버스페이스 오디세이』(홍성욱 외, 창작과비평사), 『세계와 미국』(이삼성, 한길사),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김호기 외, 한율) ▲어린이 『오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정유정, 보림), 『아름다운 농부 원경선 이야기』(송재찬, 우리교육), 『장승이 너무 추워 덜덜덜』(김용택, 푸른숲), 『바다기린』(아키야마 타다시, 박영미, 베이비북스), 『피지 아주 특별한 친구』(크리스타 벨, 윤태영, 새터), 『그 아이는 히르벨이었다』(페터 해틀링, 고영아, 비룡소), 『별똥별 아줌마가 들려주는 우주이야기』(이지유, 미래) ▲인문 『나치의 자식들』(노르베르트 레베르트 외, 이영희, 사람과사람), 『트라이앵글 세계사』(남경태, 푸른숲), 『우리 생활 100년 : 집』(김광언, 현암사), 『현실 속의 철학, 철학 속의 현실』(김석수, 책세상) ▲자연과학 『화학의 시대』(필립 볼, 고원용, 사이언스북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우리 농작물 백가지』(이철수, 현암사), 『페미니즘과 기술』(주디 와츠멘, 조주현, 당대), 『생명의 파노라마』(말론 호아글랜드, 황현숙, 사이언스북스) ▲청소년 『고치고 더한 수필로 배우는 글읽기』(최시한, 문학과지성사), 『눈보라』(톨스토이, 구본희, 큰나무), 『과학의 발견』(찰스 테일러 외, 김동광, 비룡소), 『박쥐』(손성원, 지성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최재천, 효령출판).